

2005 서울국제공연예술제(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세상과 만나는 새로운 방식!

올해로 5회를 맞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연극, 무용, 음악 등 모든 공연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예술축제로서 장르간 지역간의 창의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공연예술을 지향한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그간 탈장르적, 복합장르적 성향을 가진 작품들을 선보이고 국내외와 해외 예술가들의 역량을 결합한 작품들을 기획, 공동제작 해왔다.

올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호주, 북미, 남미 등지에서 초청된 가장 혁신적인(innovative)성향을 가진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번뜩이는 젊은 상상력과 무대에서 살아 숨쉬는 새로운 경험을 '2005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선사할 것이다.

- ▶ 공연기간: 2005년 9월 23일(금) ~ 10월 16일(일)
- ▶ 공연장소: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 · 소극장 외
- ▶ 주최 · 주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 ▶ 예매처: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 1588-789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 1544-1555
서울국제공연예술제 (02)766-0228, (02)766-0298 / www.spaf21.com

THE 5TH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서울국제공연예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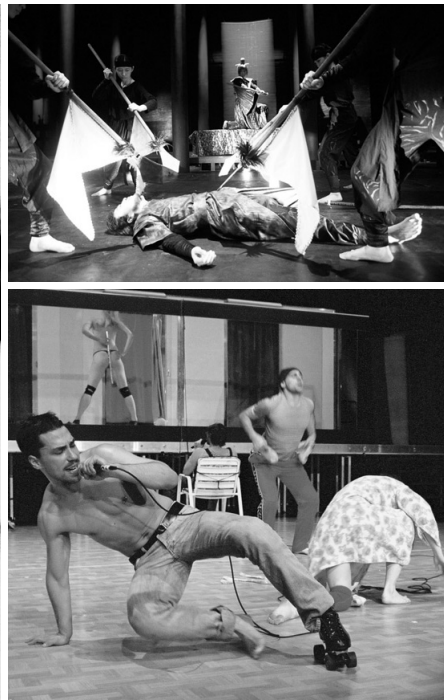
장소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국립극장, 충무아트홀, 시디아트센터,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2005.9.23-10.16

예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T. 02-766-0228, 02-766-0298 인터파크 T. 1544-1555 티켓링크 T. 1588-7890

주최 주한 사단법인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공동 후원 문예진흥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후원 KTC·S FREELINK, O'neering, DC, KOBELCO, etc...

www.spaf21.com



대극장

〈주눈의 눈〉 - 파밀리아 프로덕션(Familia Productions, 튀니지)
말하고, 쏟아버리고, 그리고 나 자신을 구하고 싶어!

〈주눈의 눈〉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청년 눈(Nun) 그리고 한 여자 정신분석가의 이야기로서 정신분석가가 15년 동안 기록한 실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시적인 대사와 무대를 세 겹으로 쪼개서 사용하는 독특한 연출무대, 아랍어의 색다른 어감이 매혹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10월 2일(일) ~ 10월 4일(화) / 일 오후 3시 / 월 오후 3시 / 화 오후 8시

〈Back to the Present〉 - 도키 팍 컴퍼니(Dorky Park Company, 독일)
자리지 않는 어른들의 금지된 장난, 그 발가벗은 육체와 교감하라!

지금 이 곳이 도대체 공연장인지 클럽인지 하는 구분은 그만둬라. 바로 지금, 뛰어나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픈 당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된다. 클래식 팝에 대한 금지된 장난들과 '개그'를 연상시키는 영상, 웃음의 공범이 되고 마는 유머로 인해 저절로 유쾌해지는 공연이다.

▶10월 7일(금) ~ 10월 9일(일) / 금 오후 8시 / 토 오후 6시 / 일 오후 3시

〈K〉- NYID, 극단 돌곶이 (호주/한국)
ON AIR. 지금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카프카의 『심판』에서 모티브를 차용한 이 작품은 정부의 시민 감시문화와 그로 인한 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죽음을 다양한 미디어 장치를 활용하여 보여준다. 컴퓨터와 스크린, 음향, 조명과 같은 미디어 장치가 만들어낼 미래적 분위기로 SF를 직접 체험하는 다이나믹한 경험에 빠져들 것이다.

▶10월 13일(목) ~ 10월 16일(일) / 목 · 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 6시 / 일 오후 3시



소극장

〈The TWO〉 - 이경은에바스 사무티즈 (한국/키프로스) 음악을 춘다! 춤을 듣는다! 이경은의 춤 〈The TWO〉

The TWO = 〈OFF Destiny〉+〈Two〉+〈사이 Between〉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안무로 국제적 명성을 쌓고 있는 안무가 이경은. 그녀가 〈The TWO〉에 서는 춤과 댄스야 댄스 없는 음악을 육체를 통해 재생한다.

▶ 9월 24일(토) ~ 9월 25일(일) / 토 · 일 오후 6시

〈서쪽부두〉 - 극단 골목길 (한국)

절망 만이 그득한 서쪽부두,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의 욕망이 꿈틀댄다.

〈서쪽부두〉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신화적 색채로 그려내는 극작가 베르나르 - 마리 콜테스의 작품이 원작으로, 희곡이 지닌 강렬함과 언어적 묘미를 연출가 박근형이 무대화 한다.

▶ 9월 28일(수) ~ 10월 1일(토) / 수-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 6시

〈자객열전 Terrorists〉 - 극단 파티 (한국)

백범 김구 선생의 격투, 저격, 암살 및 폭탄제조와 투척 그리고 도주와 잠적에 대한 특강

〈자객열전〉은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동서고금의 대표 테러리스트를 불러 모아 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발생원인을 고찰한다. 이들에 대한 정치적 접근 대신 사소하고도 일상적인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나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한다.

▶ 10월 4일(화) ~ 10월 7일(금) / 화-목 오후 8시 / 금 오후 5시, 8시



〈터미널〉 - 김삼진 무용단 (한국)

삶과 죽음의 경계선 터미널, 그곳에서 찾은 삶의 본질

〈터미널〉은 교통사고로 사망 직전의 상태, 즉 터미널 상태에 놓인 한 노인을 통해 사람에게 있어 '추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몸에 연결된 호스에 의지한 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노인에게 삶의 끈이 되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삶의 순간순간들. 바로 '추억'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묻는다. 삶과 죽음,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 10월 9일(일) ~ 10월 10일(월) / 일 오후 8시 / 월 오후 8시

〈빨간 도깨비(赤鬼)〉 - 서울공연예술제 제작 (한국/일본)

서정성 안에 빛나는 철학적 사유 - 노다 히데키 걸작 〈빨간 도깨비(赤鬼)〉

〈빨간 도깨비〉는 現 일본 연극계의 간판스타 노다 히데키의 '적귀(赤鬼)'를 한국식으로 각색한 작품. 해안가에 표류된 한 남자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빨간 도깨비'라고 몰리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우화적으로 재미있게 풀어낸다. 그러나 그저 좋고 재미있다는 수식어로는 모자란 그 옅한 철학적 깊이를 느끼게 할 작품의 마지막 반전을 기대해도 좋다.

▶ 10월 13일(목) ~ 10월 16일(일) / 목 오후 8시 / 금 · 토 오후 3시, 7시(30분) / 일 오후 3시

